

어린이 책꽂이



▲조잘조잘 박물관에서 피어난 우리 옷 이야기=우리 조상은 어떤 방식으로 옷을 만들고 때에 따라 무슨 옷을 입었을까? 박물관에서 수다를 떠는 옛 옷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상의 삶과 풍습 등을 알아본다. 우리 옷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삶과 지혜,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아이세움·9500원>



▲사과는 맛있어?=지질이 조은애와 왕금주 오지희가 주인공인 '친구가 필요해'의 뒷이야기다. 은애가 사는 낯은 아파트로 이사온 지희, 지희는 부자집 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은애는 놀란다. 은애의 사소한 말 실수로 퍼진 소문, 미안함 등이 두 아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웅진주니어·8500원>



▲지도로 보는 우리 바다의 역사=육지만이 영토는 아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장보고로 대표되는 해양 강국이기도 했다. 저자는 지도상에서 그저 여백처럼 느껴졌던 바다를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온다. 신석기 시대부터 미래의 바다까지, 해양의 역사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실림어린이·1만4800원>



▲하늘 높이 솟은 간절함 바람 탑=탑은 단순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다. 탑의 시작과 변화 과정, 그 안에 담긴 바람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탑에 얽힌 설화부터 탑의 종류까지 탑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문학동네·1만2000원>



▲오늘은 우승 내일은 도전! 최경주=최경주는 대한민국 남자 프로골프 선수 중세계무대에 가장 성공한 선수다. 완도 출신 프로골퍼 최경주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 성공에 이른 감동의 드라마를 그렸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최경주의 삶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한다. <문이당어린이·9800원>



▲비글이 아니라 굴비입니다=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여덟 가지에 얽힌 역사와 우리 조상의 생활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오곡밥, 전골, 팔죽, 굴비, 막국수, 설렁탕 등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옛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고재·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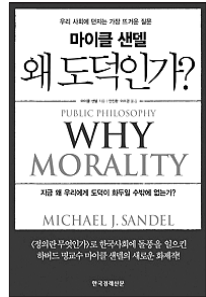
▲마중물 마중물=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은방울꽃', '우리는 닳은꼴' 등 여러 편의 시가 실린 정두리 시인의 새 동시집. '마중물 마중물'을 비롯해 32편의 신작 동시가 수록됐다. 예스러운 소재들에 얽힌 정겨운 이야기를 노래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들이 돋보인다. <푸른책들·8500원>

▲할머니의 남자친구=제5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 부문을 수상한 김일욱씨의 첫 동화집. 표제작 '할머니의 남자친구'를 비롯해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찌르레기', '졸넛기', '주머니깎'과 신작 5편을 담고 있다. <네버엔딩스토리·6800원>

정치·경제 등 도덕성이 우선돼야 공정사회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 사회에 정의라는 화두를 던졌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이번에는

도덕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그의 책 '왜 도덕인가?'는 민주사회에서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다룬다. 원제 'Public Philosophy'로 2005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다. 책은 '도덕이란 무엇인가' 등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경제적 도덕', '사회적 도덕', '교육과 도덕', '종교와 도덕', '정치적 도덕' 등 5개 주제로 나눠 지난 20년 동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도덕적 현안들을 살펴본다. 복권과 도박, 광고와 상업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존엄사, 정치인의 거짓말, 낙태, 동성애자의 권리, 줄기세포 연구, 시장의 도덕적 한계,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요구, 공공생활에서의 종교의 역할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우선 경제적 도덕을 이야기 하면서 현대 사회가 경제중심의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더 근본적인 도덕적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복권을 예로 들면서 공공영역이 책임을 외면하는 '공적 인 타락'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복권을 운영하는 미국의 주 정부들이 노동윤리와 민주적 삶을 지탱하는 도덕적 책임에 반하는 메시지인 일확 천금이라는 헛된 희망을 시민에게 퍼트리고 있다는 것.

또 정치적 도덕 관에서는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빌 클린턴 등 역대 미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인의 거짓말 범위를 고찰하기도 한다. 2부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에선 보편적 인권을 정립한 임마누엘 칸트, '정의론'의 존 롤스,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 등이 주장한 다양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지난 감점과 약점에 대해 분석한다.

3부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에서는 미국 정치의 전통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본다. 토머스 제퍼슨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사의 주요 논쟁을 제시하며 어떻게 도덕·시민적 목소리를 잃게 됐는지, 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여러 이론을 해석해서 소개하는 가운데 도덕과 정의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저자는 도덕과 정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윤리적·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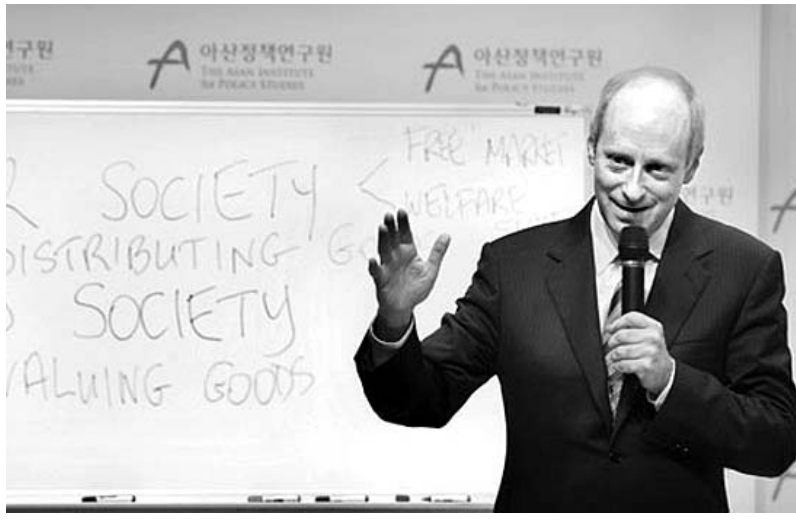
회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말하면서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도 살 수 있고, 무너진 원칙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또 최근 자유주의가 도덕적 목소리를 잃게 된 것은 공동선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공공철학과 자치를 통해 도덕적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번 나온 한국어판은 2006년 개정판에 '공정한 시민 사회를 위하여', '오바마와 시민을 위한 이상주의' 등 저자가 최근 언론 등에 기고한 글 2편을 함께 묶어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저자는 "자유주의가 도덕적 목소리를 잃게 된 것은 공동선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공공철학과 자치를 통해서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옛 문헌으로 들춰본 '인간 공자'

공자 평전

안평 친 지음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는 문재적 키워드로 '공자'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안평 친 예술대 역사학과 교수가 쓴 '공자 평전'이 번역·출간됐다.

책은 '권위와 신화의 옷을 벗은 인간 공자를 찾아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 공자보다는 '인간 공자'의 삶을 집중 조명한다. 저자는 고증학을 전공한 역사학자답게 고대 문헌을 토대로 공자의 생애를 세밀하게 복원한다.

지금까지 공자의 삶에 대한 이해는 주로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를 통해 이뤄져왔다. 하지만 저자는 사기보다 더 오래된 문헌인 '논어', '춘추좌씨전' 등을 바탕으로 공자의 삶, 특히 공자의 말년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저자는 '춘추' '춘추좌씨전'을 통해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기 1년 전인 기원전 498년 상황을 살펴본다. 노나라에서는 그해 반란이 일어나는 등 귀족 가문의 횡포가 극심했고 공자의 노력만으로는 이상향을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자가 노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외에도 공자의 습관과 취향, 사람들과의 관계 등 공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공자가 살았던 사회역사적 배경과 그와 연관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가감 없이 보여준다.

김기협 전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고,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감수했다. 원제는 'The Authentic Confucius'. <들베개·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0년동안 바뀌지 않는 식품법?

맛있는 식품법 혁명

송기호 지음



변호사 송기호(수원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씨의 '맛있는 식품법 혁명'은 한국의 식품법 100년사를 되짚어보면서 식품법이 우리의 식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송씨가 식품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1월, 발암 가능 물질이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자는 발암 가능 물질로 식판을 닦을 수 있게 허용한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식판을 잘 행군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자는 그때부터 지난 5년간 124차례에 이르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부 문서를 토대로 식품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친다.

그는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인 1911년 제정된 데라우치 식품법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는다.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인 '조선인 비위생론'을 핵심으로 하는 데라우치 식품법은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식품 위생검사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식품법의 역할 자체를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현행 식품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 식품규격과 안전기준을 정하는데 왜 식품회사가 의견을 행사하는지, 유전자조작 식품은 무엇을 근거로 합법화됐는지, 쌀은 어떻게 해서 미국산 밀에 밀려나게 됐는지 등 거대 자본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품 산업의 이면을 낱알이 고발한다. <김영사·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실제 여행처럼 느껴지는 책여행

책 여행책

박준 지음



10만부 이상 팔린 여행 서적 베스트 셀러 'On The Road'의 작가 박준의 새 책 '책 여행책'이 나왔다.

'휴가 없이 떠나는 어느 완벽한 세계 일주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책의 성격을 제대로 보여준다. 스펀 들어있던 저자가 다른 세상을 꿈꾼 건 '인도기행'이라는 한 권의 책 때문이었다.

저자는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여기에 실제 여행 이야기를 덧붙여 풍성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스물 세살 풍성가 체 계바라의 모습은 책 '체 계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통해 그려지고, 저자가 체의 길을 따라 아르헨티나를, 페루의 쿠스코를 여행했던 이야기들이 어우러졌다.

그밖에 함께 여행을 떠난 책은 에릭 파이의 소설 '야간열차', 마이클 케닝의 '아웃사이드 예찬', 후지와라 신야의 '인도방랑', 제프리 노먼의 '딸 그리고 함께 오르는 산' 에릭 메이슬의 '보헤미안의 샌프란시스코' 등이다.

뒷부분은 여행책이다. 노란천차가 인상적인 일본의 하코다테, 이탈리아의 크레모나, 쿠바의 아바나, 일본의 교토와 후지산의 풍광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느꼈던 단상들이 깔끔한 문체에 담겼다.

<웅진원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ujin (국제-에이스 큐텐) featuring a family photo and a young man on a phone. Text includes: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and product details for Kujin Q10 containing vitamins A, C, and E.